

30억신흥시장 진출전략

+30억 신흥시장 진출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학계, 유관기관, 정부로 구성된 지역별 T/F를 구성하고, 2월.11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우리의 수출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소비·투자와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미흡하고, 유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유럽 PIIGS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 그리스, 스페인 등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금융불안과 미국의 수출진흥내각 구성에 따른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출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 시장이 새로운 소비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30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역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개의

신흥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6개지역 교역비중(%,'09.12.20기준)은 약 53.2%(중국 20.5 > 중동 12.4 > 동남아 11 > 중남미 5.6 > 중앙아 1.9 >인도 1.8 순)이다.

중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를 상회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에는 GDP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우디, 터키 등의 중동, 남아공은 고유가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GDP와 잠재적인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수주의 67.2%('09년)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플랜트 시장이다.

인니 등 동남아는 한류열풍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지역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한국 상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는 2000년대에 들어

【 G7 → G20 (+30억 시장)의 구성 】

G7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7.3억명 (10.9%) • GDP 32조달러(52.7%)

G20 (선진국+신흥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인도, 인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 남아공, 사우디,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1.2억명 (61.6%) • GDP 46조달러 (76.1%)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브라질, 페루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및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등 높은 시장성이 있다. 러시아 등 중앙아의 경우, 석유, 가스, 금 매장량이 커 중동지역을 보완할 에너지 공급원이며 특히, 우즈벡, 카자흐는 주요 자원부국으로서 빠른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인도는 인구2위(11.5억명), 구매력평가GDP4위(3조2,978억불)의 신흥거대시장으로, 최근 자동차 설비등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장도 증대된다.

이처럼, +30억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신흥시장의 시장선점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추진중이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 중남미, 중앙아, 중동 총 6대지역 대상의 지역별 T/F를 구성(정부 및 업계, 학계, 유관기관등의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대상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및 특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진출전략(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 진출전략(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하여 「+30억 시장 진출전략」종합추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수출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부의 정반기 국장은 회의에 앞서 G-20,+30억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현지 니즈 파악과 그에 적합한 제품 개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산업 진출전략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수출경쟁력과 경제발전을 좌우할 +30억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들을 도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시장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2010년에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美, 日, EU 등 선진국 경제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은 年 8%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 중이다. '10년에는 GDP 규모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부상이 확실시된다.

내수 성장에 따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 중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를 상회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적극적 소비진작책 덕분에 '09년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였다.

중국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①家電下鄉(컬러TV, PC 등 가전제품), ②汽車下鄉(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 등), ③以舊換新(사용연수·환경기준 충족제품)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구매시 구매보조금 또는 교체보조금 10~13%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10년까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수시장 확대정책을 추진 중이다. 철도·도로·공항 등 인프라 건설(1.8조위안),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1조위안), 산업구조고도화 등 경제효율화(0.51조위안), 사회보장제도 개선(0.32조위안) 등이다.

중동의 경우, 對중동 교역규모는 '98년 210억불에서 '09년 856억불로 약 4배 증가했으며, '09년 현재 교역비중은 12.5%를 점유한다.

對중동 수출입액(억불, 비중)은 수출 240(6.6%), 수입 616(19.1%), 수지 △376이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된다. 對중동 수지(억불)는 (05) △352 → (06) △480 → (07) △478 → (08) △750 → (09) △376이다.

특성으로 중동은 고유가 지속 및 높은 경제성장세로 GDP와 잠재적인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여 주요 신흥시장으로 부상된다. 최근 5년간('03~'08년) 평균 6%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인구증가 및 중산층 확대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기회요인이 증대된다. 중동 내수시장 규모(억불)는 ('06) 2,000 → ('08) 4,000이다. 특히, 플랜트 수주의 67.2%('09년)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플랜트 시장이다. 중동 플랜트 수주액(비중)은 ('08) 200(43.4%) → ('09) 311(67.2%)이다.

아세안의 경우, 한·중·일에 비해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높고, 개발 가능한 자원이 풍부해 서



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질서의 중심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더불어 ASEAN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EU나 NAFTA, MERCOSURE 등 다른 경제연합에 비해 한국과 인접해 있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며, 아세안 내에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가 혼재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전략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편이다.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들과의 수직적인 분업체계 모색이 가능하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5천개사)해 있고, 백만명 이상의 현지직원이 고용되어 있어,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에 이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류열풍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지역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한국 상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남미는 2000년대 들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브라질, 페루를 중심으로 자원 개발 및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등 높은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EU에 비해 시장 위축은 덜할 전망이다. 중남미 경제 성장률(IMF, '09)은 ('07) 5.7%, ('08) 4.2%, ('09) △2.5%, ('10) 2.9%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 확대 및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시장 선점 노력을 한다. 미국은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FTA 체결하는 한편, EU와 일본은 멕시코, 칠레와 중국은 칠레,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중남미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최근 중남미 국가들과 상호 투자 및 자원협력관계를 강화 중이다.

중남미는 전체 수출비중의 7.8%를 차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0%에 달하는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편입된다.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은 ('04)31.4% → ('05)29.6% → ('06)37.4% → ('07)25.2% → ('08)29.0%이다.

중남미의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수요는 확대될 예정이다.

중앙아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이다.

석유, 가스, 금 매장량이 커 중동지역을 보완할 에너지 공급원이다. 우즈베크는 금 세계3위, 카자흐는 석유 세계7위, 우라늄 세계2위, 투르크는 천연가스 세계10%이다. 특히, 우즈베크, 카자흐는 주요 자원부국으로서 빠른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은 잠재력에 비해 미흡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 중앙아 수출 규모는 121%, 수출비중은 55% 증가하였으나, 타 신흥시장에 비해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수출비중('09)은 중국 23.8%, 중남미 7.4%, 중동 6.6%, 인도 2.2%, 중앙아 0.45%이다. 중앙아 지역

은 관료주의 팽배, 낮은 대외 개방도, 인프라 미흡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도의 경우, 인구 2위(11.5억명), 구매력평가GDP 4위(3조2,978억불)의 신흥 거대시장이다. 1위 미국(14조 2662억), 2위 중국(7조 9265억), 3위 일본(4조 3563억) (IMF)('08)이다.

04~08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8.7%를 기록하였으며, 2050년 세계 2위 경제대국 부상이 전망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타 아시아 신흥국가들 대비 무역·투자 등 경제교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GDP대비 교역량(08, %)은 중국(3.89), 베트남(10.85), 인니(3.74), 말련(8.06), 인도(1.29)이다. 한국의 아시아 신흥국가 투자현황(누적액, 억불)은 중국(400), 베트남(103.7), 인니(65.9), 말련(30.8), 인도(24)이다.

CEPA체결과 함께, 인도시장은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지역으로 진화된다. CEPA는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선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소비시장에서 중산층 확대, 소비의식 및 환경 변화로 소비시장 팽창, 품질인식 제고 등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된다. 자본재 수요에서 품질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자동화 설비 등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된다.

인프라 시장에서 제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인재 시장에서 CEPA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우리기업 취직을 고려하는 인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유라시아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

	중국	인도	러시아	우즈베크, 카자흐	전 세계
2001~2010	9.5	7.0	5.1	9.7	2.3
2011~2020	8.4	7.1	3.9	4.4	3.8

(자료 : Global Insight, '09.4)